

U-20 대표팀 다시 맡은 정정용 감독

# “우승이 목표냐고? ... 다시 출발선에 선 것 뿐”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18 대표팀이 2일 오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목포=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정용 감독

## U18 대표팀 34명 소집... AFC U-19 챔피언십 대비 목포서 훈련 “U20 준우승 성과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아시아 대회 올인할 것”

“준우승이 한순간의 향수로만 끝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월드컵 준우승의 성과가 반짝 사라질까 걱정됐습니다.”

한국 U-20 대표팀의 정정용 감독은 폴란드에서 열린 2019 U-20 FIFA(국제축구연맹) 남자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달라진 면모를 끌어내며 환호를 받았다.

정 감독은 유럽과 남미 등의 난적들을 상대로 4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U-20 대표팀을 사상 첫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모두들 정감독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감독은 또 다시 U-20 대표팀을 맡기로 결정했다.

2일 목포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만난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정감독의 머릿속에는 한국

유·청소년 축구생각 뿐이었다.

정감독은 “대회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조언했다”며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고 더 좋은 곳, 높은 곳으로 떠나버린다면 준우승의 성과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어 떠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10여년 이상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분야 전임 지도자로 근무한 정감독은 축구 공부에 매진한 학구파다. 정감독은 P급 지도자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P급 지도자 자격증은 AFC 챔피언스리그(ACL)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최상위 자격증이다. 2019 시즌 K리그에서는 P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P급 과정을 밟고 있는 이가 아닌 이상 K리그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P급 자격증 지니고 있는 정감독은 국내외 구단에 러브콜을 받았다.

정감독은 “국가대표 경력도 없는 핸드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중 하나가 P급 자격증이고 지난 2010년 일찌감치 취득했다”며 “K리그와 중국리그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했지만 전부 거절했다”고 말했다.

정감독은 U-18(18세 이하) 대표팀 34명을 소집해 지난달 26일부터 목포국제축구센터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정감독은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은 오는 11월에 열린 2020 AFC(아시아축구연맹) U-19 챔피언십 예선에 뛸 선수들이다”며 “K리그 산하에 유스 선수들을 소집했는데 광주 금호고, 광양제철고 등에 소속된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이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 대회에선 쓰리백인 아닌 포백으로 4-3-3 또는 벤투호의 4-2-3-1 포메이션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감독은 올해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3차례나 훈련을 진행했다.

정 감독은 “성인 국가대표팀과 U-20대표팀의 일정이 겹칠 경우 목포국제축구센터와 찾았다”면서 “전국에 천안·창원·목포에 국제 축구센터가 있지만 단연 목포가 최고다. 파주NFC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훈련할 경우 대회 성적이 좋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감독에게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바로 ‘에제자’ 이강인의 출장 소식이었다.

이날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리그 3라운드 만에 교체 출전해 올 시즌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정감독은 “새벽에 열린 이강인 경기를 봤다. 짧은 출전 시간에도 감각적인 패스를 보여주는 등 눈에 띄었다”며 “강인이 1일에 문자를 통해 ‘이번 대표팀에 잘 불러주세요’라고 물었다. ‘거기서

열심히 해라’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귀띔했다.

또 정감독은 “강인이 다음 U-20 월드컵에도 출전할 수 있는 나이”라며 “하지만 강인은 이제 어엿한 성인 국가대표팀의 멤버이기 때문에 U-20 대표로 뽑히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정감독은 U-18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 예선부터 도전한다.

정감독은 “결과적으로 지난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들 우승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 아시아예선도 경쟁한 팀이 많기 때문에 월드컵보다는 아시아 대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감독은 오는 10월 태국서 열리는 U-19 4개국 친선대회에 참가한다. 이후 U-18 대표팀은 오는 11월 미얀마에서 열리는 2020 AFC U-19 챔피언십에서 중국, 미얀마, 싱가포르와 대결할 예정이다.

/목포=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무더진 창 끝 ... 더더진 승격

### K리그2 26R...광주 FC, 안산 그리너스에 1-2 역전패 2위 부산 승점 4점차 추격...전남 드래곤즈, 3경기 연속 무패

광주FC가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광주는 지난 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2019 K리그2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시즌 두 번째 패배다.

4경기 연속 무승부 뒤 기록된 패배인데다 ‘루키’ 엄원상이 데뷔골을 지키지 못한 만큼 광주의 아쉬움은 크다.

광주는 개막 후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1위 독주를 이어왔다. 그리고 20라운드 안양원정에서 1-7패를 당하며 광주의 무패행진이 중단됐었다.

우려와 달리 광주는 이어진 21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이기며 패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같았지만, 이후 승격으로 가는 걸음이 더뎠다.

광주는 전남드래곤즈, 부천FC, 부산아이파크, 대전시티즌을 상대로 8월 4경기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승점 4점을 더하는데 그쳤던 광주는

9월 시작은 패배로 열렸다.

선제골은 광주의 몫이었다. 가장 기다렸던 이의 발끝에서 골이 나왔다.

전반 26분 ‘엄살라’ 엄원상이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골키퍼 윤평국이 길게 차올린 공을 중앙에 있던 펠리페가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뒤로 떨쳤다. 엄원상이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하면서 상대 수비수 두 명과 공을 쫓았다. 상대 골키퍼 황인재가 달려 나왔고, 수비수들의 견제가 멈춘 사이 엄원상이 공을 뺏아 빈 골대로 향했다. 그리고 오른쪽로 마지막 터치로 하면서 기다렸던 프로데뷔골을 터트렸다.

하지만 엄원상이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후반 27분 최준혁이 페널티지역에서 슈트를 시도하려고 안산 마사를 밀치면서 경고 카드를 받았다. 페널티킥이 찬스에서 직접 커리로 나선 마사가 광주의 골대를 뚫었다.

그리고 후반 32분 아쉬운 판정이 나왔다. 상대의

견제 속 판정에 대한 불만을 노렸던 펠리페가 퇴장을 당하면서, 광주가 수적 열세에 놓였다.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던 광주는 마지막 1분을 지키지 못했다. 경기 종료는 눈앞에 두고 마사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하면서 통탄의 역전패를 당했다.

2위 부산아이파크가 서울랜드와 3-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위 광주와의 격차는 4점 차가 됐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힌 펠리페의 거친 움직임 속 공격의 매서움이 떨어지면서 광주의 고민이 쌓였다. A매치 휴식기로 한 주 쉬어가게 된 광주는 안산전 패배를 곱씹으면서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한편 전남은 3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나선 전남은 전반 21분 바이오의 헤더로 선제골을 만들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자책골에 올랐다. 수원FC 김주엽의 슈팅이 광광선의 발을 맞고 전남 골대로 향했다.

하지만 후반 20분 역전골을 허용했던 전남은 경기 종료 직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나온 브루노의 골로 승점 1점을 확보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태극전사 활약에 빅리그 보는 재미 두배

### 손흥민, 아스널전 PK 유도 등 수훈...이재성 시즌 4호골

대표팀 소집을 앞둔 손흥민(토트넘)과 이재성(울스탄인 킬)이 리그에서 맹활약했다. 대표팀 막내 이강인(발렌시아)도 이번 시즌 첫 교체 투입돼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며 벤투호에서 활약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2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9-20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39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그라니트 자카의 무리한 태클에 걸려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페널티킥으로 나선 해리 케인이 성공시키며 토트넘은 아스날을 상대로 2-0으로 달아났다.

전반 추가시간 아스날의 알렉산드르 라카제트가 강력한 왼발 슈트로 추격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26분 피에르-에메리크 오바메양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토트넘은 라이벌 아스날과 2-2로 비겼다.

소속팀에서 공격수로 깜짝 변신한 이재성도 시즌 4호골을 터트렸다.

이재성은 지난 1일 독일 킬의 홀슈타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2(2부리그) 5라운드 홈경기에서 에르츠게비르게 아우어를 상대로 후반 28분 1-1 헤더 동점골을 넣었다.

홀슈타인 킬은 이재성의 활약 덕분에 2연패 위기를 넘겼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이강인은 짧은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숨길 수 없었다.

이강인은 2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요르카와 2019-2020 프리메라리가 3라운드에서 후반 38분 교체 출전했다.

이날 경기서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마요르카)도 교체 출전하며 ‘한일전’이 펼쳐졌다.

이강인은 짧은 출전시간에도 특유의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를 구사하며 경기를 지휘했다. 이강인에게 앞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구보는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팀의 0-2 패배를 막지 못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